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및 수능 개편안 4차 토론회③

▌제3차 토론회

특기자 전형에서 일체의 외부 스펙 요구를 금지하고 해당 학과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박홍근 국회의원실

일시: 2013. 9. 30. (월) 오후 2시

▌머리말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하였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9월 24일(화)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했습니다.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의하면,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특기자 전형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특기자 전형 모집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고, 정확한 규제가 아닌 자율적 유도 중심이어서 향후 이행 여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1차 서류 심사에서 공인어학성적이나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등 학생부 이외의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2차 면접 과정에서 대학 수준의 내용을 본고사형 시험을 실시하는 등, 고교 교육과정을 침해하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많습니다. 또한, 외부 스펙자료 제출이 엄격히 금지된 학생부 및 입학사정관전형에 비해 특기자 전형은 이러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학들이 특기자 전형의 모집인원을 늘리는 등 편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에서 현 고1~2학생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규제의 폭이 제한되었더라도, 올해 10월에 발표 예정인 ‘17학년도 대입제도안에는 특기자 전형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책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공교육 정상화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특기자전형에서 일체의 외부 스펙 금지를 명시하고, 특기자 전형의 모집단위나 모집 인원 비율을 제한하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홍근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30일(월) 오후 2시 국회에서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특기자 전형의 실태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 9. 27.

박홍근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목차

발 제

■ 제1발제: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 1
"특기자 특별전형의 현황과 문제점"

■ 제2발제: 이범 (교육평론가) ····· 27
"특기자전형, 불공정 경쟁의 극치"

논 찬

■ 제1논찬: 김덕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 33

■ 제2논찬: 전선기 (의정부 공고, 前 경기북 과학고 교사) ····· 39

■ 제3논찬: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 41

■ 제4논찬: 구본억 (교육부 대입제도관 사무관) ····· 45

▌제 1 발제

특기자 특별전형의 현황과 문제점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안상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I. 들어가며

대입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는 공감대 하에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6개 이내로 제한하고,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단순화한다는 방향성을 가지면서 가급적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을 해칠 수 있는 전형요소를 지양하도록 권장했다.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학들이 과연 자율적으로 교육부의 권장 사항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별 고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특기자 전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이번 시안에서 지적되었다. 시안에 의하면 특기자 전형은 실기 위주의 전형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표1>참조) 이는 특기자 전형이 갖는 적지 않은 독소 요소들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특기자 전형은 모집인원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전형요소에 있어 사교육 유발 요인이 많고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측면이 많은 점 등 면밀히 따져볼 부분이 많은 전형이다.

시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는 권역별 5회 공청회와 전문가·관계자 간담회·토론회, 국민 2,708명에 대한 설문조사 등,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9월 24일 시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특기자 전형과 관련하

여 '15~'16학년도 확정안에는 시안 발표 이후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한 나름의 보완책이 추가되었다. 즉,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특기자 전형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특기자 전형의 모집 규모의 축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표2>참조)

<표1> < 대입전형 체계(안) >

구분	전형 유형	주요 전형 요소
수시	학생부 위주*	· **학생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
	논술 위주	· **논술 등**
	실기 위주**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정시	수능 위주	· **수능 등**
	실기 위주	· **실기 등** (특기 등 증빙 자료 활용 가능)

* 입학사정관 등이 전형에 참여하여 학생부를 심층평가하는 경우 등을 포함
** 실기 위주 전형에는 '특기자 전형' 포함

<표2>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서 특기자 전형 관련 내용

○ **(특기자 전형)** 특기자 전형은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모집 규모가 축소**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유도**한다.

[특기자 전형]

- **문제 제기**가 있지만, **특기·소질**(예체능, 어학, 수학, 과학, 발명, IT 등)에 의한 선발이라는 점, 그간 준비해 온 고1~2 **학생의 신뢰보장** 차원에서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
- 다만,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모집규모 축소 유도**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논술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규제가 많아진 상황에서 대학들이 그동안 확대해 왔던 특기자 전형을 과연 자율적으로 줄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와 특기자 전형이 과연 대입 전형 방법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특기자 전형이 갖는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향후 특기자 전형에 대한 정책 방향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모색해보려 한다.

II. 특기자 특별전형의 현황과 역사

1. 특별전형의 종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2년 8월 31일에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특기자 특별전형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특별전형이 있다. 특별 전형은 크게 '정원 내 특별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나누어지며, '정원 내 특별전형'은 다시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과 '대학독자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으로 삼고 있는 '특기자 특별전형'은 '정원 내 특별전형'안의 '대학독자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에 속한다. 특별전형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특별전형의 종류

정원 외 특별전형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교 특별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장애인 특별전형
정원 내 특별전형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독립유공자 특별전형 -다자녀 특별전형 -다문화 자녀 특별전형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전형 -만학도 특별전형 -대안학교 출신자 특별전형 등
	대학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특기자 특별전형(예체능, 어학 등)** -취업자 특별전형 -산업대학 특별전형 -종교 관련 제한 특별전형 -학업특기자 특별전형 -동일계 특별전형 등

위에서 보듯이 특별전형은 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기회균형의 목적이나, 특정한 집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주요 대학의 특기자 전형은 크게 공인어학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 우수자 전형과 수학/과학교과에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는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교과 관련 영역에 특기자 전형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2. 특기자 특별전형의 역사

특별전형은 예체능과 실업계 우대를 중심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정부 차원에서 특별 전형을 강조한 것은 문민정부 시절 1995년에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교과 위주의 한줄 세우기 교육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성과 개성을 키우고자 특별전형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듬해인 1996년 2월에는 '방과후 교육 활동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1996년부터 농어촌 특별전형이 실시되었다. 1997년에는 수시 전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당시 특별전형의 문제의식은 교과에만 집중하는 교육이 아닌 창의성과 개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었다. 특별전형의 모집 단위와 적용 범위도 한정적이어서 도입 첫해인 1997년에 수시 모집 비율은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았고,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대학 신입생의 수는 9.7% 정도 수준이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를 대입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생각은 2002학년도 대학입시 정책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당시 정부는 '새로운 대학입학제도와 교육비전 2002'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입시에서 시험 점수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적성, 특기, 품성, 사고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소위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를 펴고자 했다. 추천제 등 무시험 전형이 확대되고 특기자 전형이 신설되며 1학기 수시 모집이 도입된 것이 이 때의 일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대학 신입생의 비율도 급격히 높아졌다. 1997년에 9.7%에 머물던 특별전형 입학생 비율은 2001년 23.4%, 2006년에는 37.4%로 급격히 증가했다.[1)]

한편, 요즘과 같은 외국어/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 증가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특별전형은 원래 교과 영역 이외의 다양한 특기를 입시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고, 다양한 사회 소외 계층의 선발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던

1)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교육 40년, 한스미디어, 2007

것이 2008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전형 방법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교과 특기자 전형이 자리잡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한 과정은 대학의 실제 수시전형 요강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표4> 성균관대학교 2007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일부)

전형유형 / 모집단위		모집단위 코드	특기자 전형						
			한문	특별사회봉사	올림피아드입상자	영상	연기예술	체육	자기추천
인문과학계열 (* 하단 세부전공표 참조)		01	30						2
전공예약	*국어국문학*	52							
	프랑스어문학	54							
	독어독문학	56							
	러시아어문학	57							
	한문학	58							
	사학	59							
	철학	60							
사회과학계열 (* 하단 세부전공표 참조)		02		5					3
전공예약	*사회학*	61							
	심리학	62							
	통계학	64							
법학과		07							
영상학		19				5			
연기예술학*		20					5		
합 계			30	5		5	5		5

<표5> 성균관대학교 2008학년도 수시요강(일부)

전형유형 / 모집단위	수시 2-1 (면접형)										
	학업우수자	글로벌리더	경영학(글로벌)	장영실	올림피아드	지역리더육성	특별사회봉사경력자	영상특기자	연기예술특기자	체육특기자	자기추천자
인문과학계열	80	30				6					5
사회과학계열	120	30				8	5				
법학과	50	10									
경영학(글로벌)			70								
자연과학계열	70					4					5
공학계열	150			20		8					
정보통신계열	70			40		4					
반도체시스템공학				40	10						
약학부					5						
의예과					5						
건축학과(5년제)	16										
전공예약 사회학											
전공예약 심리학											
전공예약 통계학											
의상학	16										
영상학	5							5			
연기예술학									5		
스포츠과학부	4									40	
합계	**629**	**70**	**70**	**100**	**20**	**30**	**5**	**5**	**5**	**40**	**1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리더와 같은 영어 교과 영역의 특기자 전형이 추가되고 그 선발 인원도 대폭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각 대학들은 특기자 특별전형의 인원을 늘려왔으며,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우 대략 전체 수시 인원의 20%정도를 특기자 전형이 차지하고 있다.

<표6> 2014학년도 주요 대학 특기자 전형 현황

	전형명(모집계열)	특기자모집인원	특기자인원 / 수시인원 (비율)
경희대	글로벌•과학인재	205	205 / 2,876 (7.1%)
고려대	국제	300	690 / 3,035 (22.7%)
	과학	270	
	★ OKU 미래인재	120	
서강대	알바트로스	150	221 / 1,238 (17.8%)
	★ 자기추천	71	
서울대	★ 일반전형	1,808	1,808 / 2,572(70.2%)
성균관대	특기자	338	534/ 2,961 (18.0%)
	과학인재	196	
연세대	특기자전형	954	954 / 3,408 (27.9%)
이화여대	글로벌인재, 과학인재	180/120	475 / 1,911(24.9%)
	특별전형-어학우수자	95	
	특별전형-국제학부	80	
중앙대	과학인재	171	429 / 3,607 (11.8%)
	글로벌리더	258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347	347 / 3,377(10.2%)
한양대	재능우수자	55	350 / 2,060(16.9%)
	한양우수과학인	150	
	글로벌 한양	145	
합계		6,013	6,013 / 27,045(22.2%)

★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한양대 글로벌한양 전형은 논술전형과 중복체크

<표7> 특기자인원 / 수시인원 비율 비교

대학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평균
2013(%)	4.1	22.6	15.8	69.9	4.4	20.4	20.2	21.2	17.9	18.8	21.9	21.56
2014(%)	7.1	22.7	17.8	70.2	0	18.0	27.9	24.9	11.8	10.2	16.9	20.68
증감	3.0	0.1	2.0	0.3	-4.4	-2.4	7.7	3.7	-6.1	-8.6	-5.0	-0.8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기자 전형은 수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형이며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요구하는 서류나 면접의 방식에 있어 고교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안에서 특기자

전형을 실기 전형에 준하여 실시한다는 정도로 언급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특기자 특별전형의 전형 방법

특기자 특별전형의 전형방식은 대개 2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통해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에 대한 심층면접, 논술, 영어면접이나 영어에세이,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시험 등을 실시하여 최종 선발한다. 1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주로 공인어학성적과 올림피아드 등의 수상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특기자 전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러한 서류 요건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으로는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2단계에서 실시하는 면접의 수준 역시 매우 높아서 외고와 과고를 비롯한 특목고 학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표8> 2014학년도 주요 11개 대학 특기자 전형 전형방법

	전형명(모집계열)	전형방법	
		1단계	2단계
경희대	글로벌과학인재	서류(100%)	
고려대	국제	서류(100%) 3~5배수 선발	1단계 성적(70%) + 심층면접(30%)
	과학	서류(100%) 3~5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심층면접(40%)
	OKU미래인재	서류(100%) 5배수 선발	서류 (50%) + 면접(30%) + 기타(20%)
서강대	알바트로스(인문)	영어에세이(100%) 2배수 선발	1단계 성적(80%) + 서류(20%)
	알바트로스(자연)	서류(100%) 2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면접(40%)
서울대	일반전형	서류(100%) 1.5~3배수 선발	종합평가(100%): 서류평가 + 면접 및 구술고사
성균관대	특기자(인문)	(일괄합산) 학생부(교과)(40%) + 서류(60%)	
	특기자(자연)	(일괄합산) 논술(40%) + 서류(60%)	
연세대	특기자	서류(100%) 30% 내외 우선선발 후, 일정배수 선발	1단계 성적(60%) + 수학/과학 구술시험(40%)
이화여대	미래인재	학생부(20%) + 서류 (80%) 3.5배수 내외선발	1단계 성적(70%) + 면접 (30%)
	특별전형	서류(100%) 3.5배수 내외 선발	서류 (60%) + 면접(40%)
중앙대	과학인재	서류(60%)+ 수리과학능력평가 (40%)	
	글로벌리더	우선: 영어에세이(30%) 혹은 해당 외국어 에세이(30%) + 서류 (70%) 일반: 영어에세이(50%) 혹은 해당 외국어 에세이(50%) + 서류 (50%)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영어, 외국어: 어학시험변환점수(30%) + 영어 혹은 외국어 에세이 (70%) 교육과정연계: 학생부 (30%) + 영어 에세이 (70%)	
한양대	글로벌한양	(일괄합산) 공인어학성적(50%) + 논술(50%)	
	한양우수과학인	학생부(교과)(20%) + 서류평가(20%) + 수리사고평가(60%)	
	재능우수자	전모집단위: 서류(100%, 대회 입상실적) 국제학부: 서류(50%)+ 영어 에세이	전모집단위: 1단계 성적(20%)+ 학생부(30%)+ 면접(50%) 국제학부: 1단계 성적(50%)+ 면접(50%)

III. 특기자 특별전형의 문제점과 고려사항

1. 특기자 특별전형의 문제점

(1) 전형 1단계 서류 - 학교 교육과정과 무관한 지원 자격

특기자 전형은 외국어 또는 수학/과학 교과에 뛰어난 학생이 지원하도록 지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다. <표9>는 각 대학의 특기자 전형 지원 자격 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공인어학성적을 지원 자격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형이 상당수 존재하고, 올림피아드와 같은 수상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원 자격에서 명시적으로 공인어학성적이나 수상실적을 요구하지 않은 전형의 경우에도 이들 서류(실적)가 핵심적인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9> 2014학년도 주요 15개 대학 특기자 전형의 지원 자격 요건

		전형명	지원 자격
1	건국대	국제화	인문:TOEFL IBT 100점, TOEIC 900점, TEPS 850점 이상 자연:TOEFL IBT 80점, TOEIC 825점, TEPS 739점 이상 체육교육: TOEFL IBT 80점, TOEIC 825점, TEPS 739점 이상 중문:HSK(신) 6급, 일어 교육: JPT 800점 이상,
2	경희대	글로벌・과학 인재	글로벌인재 중 외국어외국어우수자: TOEIC 950점, TOEFL IBT 105점, TEPS 930점, IELTS 7.0 이상 과학인재: 수학・과학 관련 교과 65단위 이상 이수자
3	고려대	특별전형	국제인재 인문: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외국어(영, 독, 불, 중, 노, 일, 서어)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열정을 보인자 자연: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갖추고 외국어(영, 독, 불, 중, 노, 일, 서어) 분야에서 열정을 보인자 과학인재 수학 및 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4	동국대	전공재능우수자 (어학재능)	인문: TOEFL IBT 100점, TOEIC 900점, TEPS 828점 이상 자연: TOEFL IBT 90점, TOEIC 830점, TEPS 738점 이상 일본어: JPT 850점 이상 중국어: (신)HSK 6급
5	서강대	알바트로스 특기자 (인문・사회)	1) 인문계, 영미문화계, 사회과학계, 경제학부, 경영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국제한국학계: 영어 TOEFL IBT 105점, TEPS 850점 이상 2) 독일문화: 독일어 ZD/Goethe-Zertifikat(B1이상), DSD(1이상), ZMP, ZOP, TestDaf(3등급이상), KDS, GDS 3) 프랑스문화: 프랑스어 DELF(B1이상), DALF 4) 중국문화: 중국어 신HSK 5급 이상

			5) 일본문화: 일본어 JPT 850점 이상, 신JLPT N1급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은 지원자격으로만 적용되며 성적에 따라 점수화되지 않음
		알바트로스 특기자(자연)	1) 과학고 또는 영재고 졸업(예정)자 2) 수학/물리/화학/생물 올림피아드 참가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2010년 이후 대회 KMO 고등부시험 은상 이상 수상자, KPhO, KChO 고등부 겨울학교 수료자, IBO 국가대표 1차 후보자
6	서울대	일반전형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 관련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보인 자
7	서울시립대	해당전형없음	
8	성균관대	특기자	인문: 국내 고교과정에서 외국어전문교과 또는 국제에 관한 전문교과를 이수한 자, 외국어능력과 리더십 등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 자연: 국내 고교과정에서 과학에 관한 전문교과를 이수한 자, 수학/과학 부문에 탁월한 역량을 갖춘 자
9	숙명여대	글로벌인재	동일 언어 부문에서 한 개이상의 공인외국어성적 취득하고 공인외국어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1) 영어: SMU-MATE, TOEIC, TOEFL, TEPS 2) 프랑스어: DELF, DALF, TCF 3) 중국어: 신HSK, 신HSK 고급회화 4) 독일어: ZD/Goethe-Zertifikat(B1이상), ZMP, TestDaF(3등급 이상), DSD, ZOP, KDS, GDS 5) 일본어: JLPT, JPT
10	연세대	특기자 (인문/자연)	인문계열 가.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이수단위 및 등급 조건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한문 제외)와 국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58단위 이상인 자 2)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한문 제외)와 국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30단위 이상이며, 상위등급 30단위의 이수단위 가중 평균등급이 2.0등급 이내인 자 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해외고 출신자로서 인문사회계열 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연구보고서, 대외수상 및 활동경력, 발표된 논문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자연계열 가.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이수단위 및 등급 조건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의 이수단위의 합이 35단위 이상이며, 각 교과별 이수단위 가중 평균등급이 각각 3.0등급 이내인 자 2) 수학 관련 전문교과와 과학관련 전문교과의 이수단위의 합이 10단위 이상인 자 나.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올림피아드 참가자(참가자 선발을 위한 계절학교 수료자 포함), 국내 전국규모(사설기관, 지방행정자치단체 및 고교 주관 제외) 올림피아드 입상자 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해외고 출신자로서 과학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연구보고서, 대외수상 및 활동경력, 발표된 논문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자
11	이화여대	특별전형(어학우수자)	영어 또는 제2외국어(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분야의 아래의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자 영어: TOEFL, TOEIC, TEPS, IELTS 중국어: 신HSK

			프랑스어: DELF, DALF 독일어: ZD, Goethe-Zertifikat, ZMP, ZOP, KDS, GDS, DSD, TestDaF
		특별전형(국제학부)	영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자
12	중앙대	과학인재	1) 국내 과학고(영재고) 졸업(예정)자 2) 과학중점고등학교의 과학중점과정 이수(예정)자 3) 기타 수학,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
		글로벌리더	1) 국내 고등학교 과정엣 ㅓ외국어(영어, 제2외국어)에 관한 교과 및 외국어에 관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합이 30단위 이상 또는 국제에 관한 전문교과 15단위 이상 이수자 2) 국내외의 고교 출신자 중 영어 또는 제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분야에서 글로벌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 - 독일어문학: ZD B1(Goehte-Institut, TELC): 1등급 이상, Zertifikat B2(Goehte-Institut, TELC): 2등급 이상, Zertifikat C1(Goethe-Institut, TELC): 3등급 이상, Test DaF 12점 이상, DSH 합격, ZOP(Goethe-Institut) 합격, DSD Ⅱ 합격 - 프랑스어문학: DELF A2, DALF C1 이상 - 러시아어문학: TORFL 기본 단계 이상 - 일본어문학: 新JLPT N1등급 140점 이상 - 중국어문학: 新HSK 6등급 인증 - 상기외 모집단위: TOEFL IBT 100점 이상, TEPS 820점 이상
13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영어: FLEX 1200, TOEF 105L, TOEIC 950, TEPS 860,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프랑스어: FLEX 1100, DELF B2, DALF C1, C2,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독일어: FLEX 1100, ZD(Goethe-Zertifikate) B2, TestDAF 3,4,5등급, DSD Ⅱ등급, DSH 합격자,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러시아어: FLEX 1100, TORFL 1단계,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스페인어: FLEX 1100, DELE B2,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중국어: FLEX 1100, 신HSK 6급,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일본어: FLEX 1100, JPT 880, 신JLPT N1 150이상, 경시대회 장려상 이상
14	한양대	글로벌한양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자로서 모집단위별로 본교가 지정한 공인어학성적 기준 성적 이상 소유자 1) 외국어 또는 국제에 관한 전문교과를 15단위 이상 이수한 자 2) 아래 모집단위별 학생부 교과성적 기준 충족자 - 영어: TOEFL IBT 100점, TEPS 800점 - 중국어: HSK 9급, 신HSK 6급 - 일본어: 신JLPT N1 등급 - 독일어: ZD, ZMP, TestDAF
		한양우수과학인	과학고등학교 또는 과학영재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자, 조기졸업예정자 포함)
		재능우수자(국제학부)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본교가 지정한 공인영어성적 기준 점수 이상 소유자. TOEFL IBT 105, TEPS 870점 이상
15	홍익대	해당전형없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외국어 특기자의 경우 공인어학성적을, 수학/과학 특기자의 경우 올림피아드 실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소위 외부 스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자격은 학교 교육과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이다.

(2) 전형 1단계 서류 - 특목고에 편향되게 유리한 전형요소

특기자 전형이 가진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원 자격에서의 불평등 요소이다. 지원자격에 '과학고나 영재고 졸업예정자'라고 명시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외국어나 국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58단위 이상인 자'를 자격 요건에 넣기도 한다. 외국어 58단위 이수는 일반학교에서는 이수가 불가능한 단위수이고 외국어고 학생들에게나 가능한 수치이다. 주요 대학 수시 정원의 20%를 넘는 특기자 전형이 이처럼 특목고 노골적으로 유리한 전형을 실시하는 것은 특목고 입시 과열과 직결된다. 상위권 대학들이 이처럼 특목고에 특혜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상위권 대학 입학을 위한 특목고 입시 과열을 일어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초·중학교 사교육비 상승은 물론이고 특목고의 설립 취지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전형 2단계 면접 - 대학 내용이나 본고사형으로 이루어지는 면접 및 구술고사

높은 수준의 지원 자격 요건과 학생부 이외 서류(실적)를 요구하는 것과 함께 특기자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논술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 수시전형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한 특기자 전형(2013학년도 이후 일반전형으로 명칭 변경)의 면접 난이도는 정규교육과정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전형의 합격자 절반은 과고생이 채우고 있으며, 일반고에서 합격하는 경우도 중학교시기에 과고를 준비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한 정도의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남에는 서울대 특기자 전형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존재하고, 이 학원 재원생의 90% 정도는 과고생이라고 한다. 또한 이 학원에서 사용되는 학원교재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문제가 대학교 수학 과정 수준을 다루고 있었다.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특기자전형 구술면접시험 자연계 평가결과 내용 중 일부
(2012.10.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서울대학교 자연계 구술면접 시험 총 50.9%가 대학 교과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확인, 수학과목은 90.9% 대학 내용 출제, 생물(64.3%)과 물리(50%) 외 다른 과목도 예외 없어…….**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특기자전형 수학/과학 구술면접 시험에 출제된 57문제를 전부

분석한 결과, 29문제(50.9%)가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의 경우는 구술면접 11문항 중 10문항이 명백한 대학 교육과정의 문제를 냄으로써 출제비율이 91%이었고, 그 외 생물(64.3%)과 물리(50%) 등 다른 과목들도 예외 없이 대학 수준의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수준은 경시대회에서 주로 출제되는 유형이 반영되어 영재학교나 특목고 학생, 그리고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특목고를 준비했던 경험으로 선행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있는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 대다수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대학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혼합한 형태의 문제 또한 많이 출제되어, 서울대 특기자 전형의 구술면접을 준비하려면,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선행교육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구술면접 문항 중 대학 내용 출제 문항 및 비율]

과목	학부	대학 교과 수준 문항수/총문항	대학 교과 수준 문항수/총문항	**대학내용 출제비율**
수학	자연과학대학	3/4	10/11	**90.9 %**
	공과대학	7/7		
물리	간호/농업생명과학/생활과학대학	3/6	6/12	**50 %**
	자연과학/공과/사범대학	3/6		
화학	농업생명과학대학	2/6	3/12	**25 %**
	자연과학/공과대학	1/6		
생물	농업생명과학/사범대학	4/7	9/14	**64.3 %**
	자연과학대학	5/7		
지구과학	자연과학대학	1/8	1/8	**12.5%**
총		29/57	29/57	**50.9%**

■ **서울대학교 자연계 구술면접 시험 문제의 80.7%가 본고사 유형으로 출제되었고, 특히 수학은 100% 본고사로 출제…….**

또한 이번에 분석을 실시한 구술면접 문항의 '본고사 형식' 여부를 확인해 보니, 총 57문항 중 46문항으로 80.7%가 문제풀이와 정답을 요구하는 본고사 형식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은 지난 서울 주요 10개 대학들의 수리논술 결과와 동일하게 100% 본고사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물리(약 92%), 화학(약 83%), 생물(64%), 지구과학(62%)의 과학 과목도 과반을 훨씬 넘는 비율로 본고사 형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30분이라는 구술면접 준비 시간을 주고 15분 안에 문제풀이형 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학/과학 구술면접 문제 수준은 상당한 정도의 **선행을 통한 학습이 전제되지 않고는 도무지 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구술면접 시험의 본고사형 문항 비율]

과목	학부	본고사형/총문항	본고사형 비율
수학	자연과학대학	4/4	100%
	공과대학	7/7	
물리	간호/농업생명과학/생활과학대학	5/6	91.7%
	자연과학/공과/사범대학	6/6	
화학	농업생명과학대학	6/6	83.3%
	자연과학/공과대학	4/6	
생물	농업생명과학/사범대학	3/7	64.3%
	자연과학대학	6/7	
지구과학	자연과학대학	5/8	62.5%
총		46/57	80.7%

이러한 상황은 2013학년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려대 과학영재전형은 총 17문항 중 4문제를 대학 내용으로 출제하여 대학 수준 문제 비율은 23.5%를 차지하였고,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은 총 37문항 중 8문항을 대학 내용으로 출제, 출제 비율은 21.6%를 차지했다. 게다가 120분이 안 되는 시간 속에서 13~17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 15분 안에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준비와 사교육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전형이다.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13>이다.

<표13> 2013학년도 2개 대학 자연계 구술면접전형 중 대학 내용 출제 문항수 및 비율

대학	구술면접 전형	수학 대학수준 문항수	과학 대학 수준 문항수				총 문항수	출제 비율 (%)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고려대	수시 과학영재전형	1/5	0/3	0/6	3/5	1/3	5/22	22.7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	3/6	0/8	4/9	7/10	2/10	25/86	29.0
	정시 일반전형	1/6	2/7	5/11	1/10	0/9		
총		5/17	2/18	9/26	11/25	3/22	30/108	27.8
비율%		29.4	11.1	34.6	44.0	13.6		

이러한 구술면접은 특기자 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표14>은 2013학년도 수도권 14개 대학 중 구술면접을 치룬 대학들의 전형 현황이다.

<표14> 2013학년도 주요대학 구술면접 전형 현황

	전형명(모집계열)	모집인원	구술면접인원/수시인원 (비율)
고려대	과학영재	270	270/2,881(9.4%)
서강대	알바트로스(자연계)	24	24/1,207(2.0%)
서울대 수시	일반전형(자연계)	882	882/2,496(35.3%)
서울대 정시	자연계열	279	279/634(44.0%)
성균관대	특기자전형(자연계)	193	193/2,683(7.2%)
연세대	과학인재	314	314/2,670(11.8%)
중앙대	과학인재	197	197/2,554(7.7%)
한양대	한양우수과학인	147	147/1,934(7.6%)

물론 정부와 대학 당국의 노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의 경우 2014학년도 모집요강을 보면 서류 요소에서 공인어학성적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고,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안에도 문제풀이식(본고사식) 구술형 면접을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성적 우수자를 뽑고자 하는 유혹에 흔들리기 쉽고, 어느 한 대학이 규칙을 어길 경우 자기 대학만 손해 볼 수 없다는 논리로 공동의 합의는 금새 깨질 수 있다. 또한, 대학 수준의 문제 비율을 상당히 낮춘다고 해도, 한 두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소수의 대학 수준 문제만 출제되도 그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특기자 전형의 면접 방식에는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전형 1,2단계 공통 - 사교육 유발 : 공인어학성적이나 올림피아드 수상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 심화

특기자 특별전형에서 요구되는 공인어학성적이나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기타 자신의 특기를 드러내는 요소들은 사교육을 유발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림피아드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아야 대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인어학성적도 어릴 때부터 고가의 영어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좀처럼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점수이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에서 요구하는 공인어학 성적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는 아래의 서울대학교 석박사 과정 지원가능 어학 점수와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표10>,<표11>참조) 예를 들어 100점 이상의 토플 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요구되는 수준의 점수이다. 이러한 수준의 점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 영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일로 해석될 수 있다.

<표10> 서울대학교 석사 및 석사박사통합과정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영어점수

TEPS	TOEFL IBT	대 학 (원)
801점 이상	103점 이상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영어전공
701점 이상	94점 이상	인문대학(언어학과, 미학과),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언론정보학과, 심리학과), 법과대학(지식재산전공 제외), 국제대학원
664점 이상	90점 이상	자연과학대학(뇌인지과학과), 경영대학, 법과대학(지식재산전공)
601점 이상	84점 이상	인문대학(영어영문학과, 언어학과, 미학과 제외), 사회과학대학[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협동과정(여성학 전공)], 공과대학(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제외),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 미술대학(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독어, 불어전공), 사회교육과, 체육교육과(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 협동과정(미술교육, 특수교육, 글로벌교육협력전공)], 생활과학대학(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의과대학(의학과, 의과학과)
551점 이상	77점 이상	자연과학대학(뇌인지과학과 제외), 간호대학, 공과대학(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공학부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미술대학(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제외), 사범대학[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스포츠과학, 인간운동과학 전공), 협동과정(가정교육, 유아교육 전공)],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협동과정), 치의학대학원, 보건대학원(보건학과), 행정대학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522점 이상	72점 이상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 농생명공학부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제외), 사범대학(과학교육과)
501점 이상	69점 이상	음악대학, 사범대학[협동과정(음악교육, 환경교육 전공)], 보건대학원(환경보건학과), 환경대학원

<표11>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모집단위별 지원가능 영어점수

TEPS	TOEFL			대 학 (원)
	CBT	IBT	PBT	
801점 이상	257점 이상	103점 이상	613점 이상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사범대학 외국어교육과 영어전공
748점 이상	247점 이상	98점 이상	597점 이상	국제대학원
701점 이상	240점 이상	94점 이상	587점 이상	인문대학(언어학과, 미학과), 사회과학대학(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사회학과,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언론정보학과),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664점 이상	233점 이상	90점 이상	577점 이상	자연과학대학(뇌인지과학과), 경영대학, 행정대학원
601점 이상	223점 이상	84점 이상	563점 이상	인문대학(영어영문학과, 언어학과, 미학과 제외), 사회과학대학[사회복지학과, 협동과정(여성학 전공)],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 공과대학, 미술대학(협동과정 미술경영 전공 포함), 사범대학[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외국어교육과(독어, 불어 전공), 사회교육과, 체육교육과(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협동과정(미술교육, 특수교육, 글로벌교육협력 전공)], 생활과학대학(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의과대학(의학과, 의과학과), 보건대학원[보건학과(보건학,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551점 이상	210점 이상	77점 이상	550점 이상	자연과학대학(뇌인지과학과 제외), 간호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농생명공학부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사범대학[윤리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스포츠과학, 인간운동과학 전공), 협동과정(가정교육, 유아교육 전공)],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협동과정), 치의학대학원, 보건대학원(환경보건학과), 융합과학기술대학원
522점 이상	200점 이상	72점 이상	533점 이상	농업생명과학대학(농경제사회학부, 농생명공학부 바이오모듈레이션 전공 제외), 사범대학(과학교육과)
501점 이상	193점 이상	69점 이상	523점 이상	사범대학[협동과정(음악교육, 환경교육 전공)], 음악대학, 환경대학원

이외에도 핵심 전형자료로 쓰이는 제출서류 역시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표12>는 각 대학의 특기자 전형 모집요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생부 이외의 서류를 정리한 것이다.

<표12> 2013학년도 주요 대학 특기자 전형의 제출서류

	전형명	제출서류 항목
건국대	국제화	- 공인외국어성적표
경희대	특기자	- 공인영어성적표
고려대	국제	- 외국어에 관한 성취를 입증하는 자료 - 최대 5개 활동분야로 구성, 각 분야별 제출서류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과학	- 수학 또는 과학 관련 활동 실적 증빙서류(최대 5개 활동분야로 구성중 분야별 최대 3개 이내로 제한)
동국대	전공재능우수자 (어학재능)	- 해당 외국어 정기시험
서강대	알바트로스(인문)	- 공인외국어성적
	알바트로스(자연)	- 우수성 관련 자료(자료목록표 포함)
서울대	일반전형	- 각종 증빙서류
서울시립대	글로벌리더	- 외국어성적증명서 또는 한자자격증 - 특시성적 증명서
성균관대	특기자(인문)	- 공인어학성적표
	특기자(자연)	- 수학/과학 부문 영재성 입증 자료
숙명여대	외국어우수자	- 공인외국어 성적표
연세대	UD/ASD/TAD	- 기타서류 목록표
	과학인재	- 올림피아드 상장 혹은 수료증(지원자격2에 해당하는 경우) - 과학인재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원본 입증자료, 기타서류목록표 5가지 이내 제출(지원자격3에 해당하는 경우)
이화여대	인문계열	- 공인외국어시험성적
	국제학부	- 공인영어시험성적 - 수상 및 활동실적(국제학부에서의 수학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수상실적, 인증서, 연수 및 활동실적 등)
중앙대	글로벌리더(유형1)	- 공인어학시험성적표
	과학인재	- 과학관련 교내외 수상실적(국내외 올림피아드 수상실적 포함) - 겨울학교 입교자 증빙서류(물리, 화학 올림피아드 해당자) - 1차 국가대표 후보 교육대상자 증빙서류(생물 올림피아드)
한국외대	글로벌리더	- FLEX, TOEFL, TOEIC, TEPS 성적표 및 경시대회 상장 사본
한양대	글로벌한양	- 공인어학성적표
	한양우수과학인	-

2. 특기자 특별전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

(1) 교과 영역의 특기자 전형이 필요한가

초두에 살펴보았듯이 애초에 특별전형은 교과 영역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창의성을 입시에 반영하거나 소외된 계층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외국어와 수학/과학을 중심으로 한 교과 영역의 특기자 전형이 상당 비율을 차

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기자란 특별한 소질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최근에는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독특한 성격과 특성을 가진 특기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2]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특기를 더욱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특기를 이용하여 진학에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진정한 특기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입시에서 굳이 교과 영역의 특기자 전형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 영역의 실력은 학생부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 또한,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교과 이외의 진정한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2) 특기자 전형이 관련 전공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도 되는가

특기자는 말 그대로 어느 특정 영역에 특별한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외국어/수학/과학 특기자가 전공에 상관없이 특기자로 인정받으며 선발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잘 나와 있다.

<표15> 연세대학교의 2014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대학	모집단위	논술 계열	입학 정원	일반 전형	특기자 전형				
					인문	자연	국제	예・체능	소계
	자유전공	사회	55	25	-	-	-	-	-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인문	46	15	11	-	-	-	11
	*중어중문학과	인문	32	11	7	-	-	-	7
	*영어영문학과	인문	76	26	14	-	-	-	14
	*독어독문학과	인문	30	10	6	-	-	-	6
	*불어불문학과	인문	33	12	6	-	-	-	6
	*노어노문학과	인문	30	10	6	-	-	-	6
	*사학과	인문	46	16	9	-	-	-	9
	*철학과	인문	35	11	7	-	-	-	7
	*문헌정보학과	인문	30	11	6	-	-	-	6
	*심리학과	인문	38	13	7	-	-	-	7
상경대학	경제학부	사회	184	62	38	-	-	-	38
	응용통계학과	사회	60	22	12	-	-	-	12
경영대학	경영학과	사회	287	91	60	-	-	-	60
이과대학	*수학과	자연	38	8	-	8	-	-	8
	*물리학과	자연	34	7	-	8	-	-	8
	*화학과	자연	51	13	-	10	-	-	10
	*지구시스템과학과	자연	32	6	-	7	-	-	7
	천문우주학과	자연	28	6	-	5	-	-	5
	대기과학과	자연	28	6	-	5	-	-	5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자연	89	19	-	20	-	-	20
	전기전자공학부	자연	198	44	-	43	-	-	43

2) 백순근, 특기・적성교육과 특기자 특별전형을 위한 평가 방안: 특기자의 유형과 수준 및 선발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평가연구. 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건축공학과	자연	78	18	-	17	-	-	17
	도시공학과	자연	36	8	-	7	-	-	7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자연	79	18	-	17	-	-	17
	기계공학부	자연	128	32	-	25	-	-	25
	신소재공학부	자연	108	24	-	23	-	-	23
	정보산업공학과	자연	39	9	-	8	-	-	8
	*컴퓨터과학과	자연	69	15	-	14	-	-	14
	글로벌융합공학부		20	-	-	-	-	-	-
생명시스템대학	*시스템생물학과	자연	39	9	-	7	-	-	7
	*생화학과	자연	36	8	-	8	-	-	8
	생명공학과	자연	56	13	-	11	-	-	11
신과대학	*신학과	인문	48	16	9	-	-	-	9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사회	84	28	16	-	-	-	16
	행정학과	사회	82	28	18	-	-	-	18
	사회복지학과	사회	27	9	5	-	-	-	5
	*사회학과	사회	40	14	8	-	-	-	8
	문화인류학과	사회	14	5	2	-	-	-	2
	언론홍보영상학부	사회	45	17	9	-	-	-	9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17	-	-	-	-	3	3
	*성악과		25	-	-	-	-	-	-
	*피아노과		20	-	-	-	-	9	9
	*관현악과		39	-	-	-	-	13	13
	*작곡과		19	-	-	-	-	-	-
생활과학대학	*의류환경학과(인문)	인문	27 13	4	2	-	-	-	2
	*의류환경학과(자연)	자연	14	4	-	2	-	-	2
	*식품영양학과(인문)	인문	26 13	3	2	-	-	-	2
	*식품영양학과(자연)	자연	13	4	-	2	-	-	2
	실내건축학과(인문)	인문	26 13	3	2	-	-	-	2
	실내건축학과(자연)	자연	13	4	-	2	-	-	2
	*아동・가족학과(인문)	인문	27 22	6	3	-	-	-	3
	*아동・가족학과(자연)	자연	5	3	-	-	-	-	-
	생활디자인학과(인문)	인문	26 20	6	3	-	-	-	3
	생활디자인학과(자연)	자연	6	3	-	-	-	-	-
교육과학대학	*교육학부	인문	54	17	11	-	-	-	11
	*체육교육학과		46	-	-	-	-	24	24
	스포츠레저학과	인문	43	2	-	-	-	22	22
간호대학	*간호학과(인문)	인문	37	12	6	-	-	-	6
	*간호학과(자연)	자연	36	13	-	3	-	-	3
국제대학	계열		120	-	-	-	120	-	120
	융합인문사회(HASS)계열		153	-	-	-	153	-	153
	융합과학공학(ISE)계열		40	-	-	-	40	-	40
의과대학	의예과	자연	77	22	-	21	-	-	21
치과대학	치의예과	자연	42	12	-	12	-	-	12
합 계			3,408	833	285	285	313	71	954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기자 전형은 전 학과에 걸쳐 인원이 배정되어 있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특기자 전형이 각 전공의 특성에 맞는 특기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영어/수학/과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특기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과에 걸쳐 선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고/과고와 같은 특목고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유리한 전형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은 위의 대학의 특기자 전형 지원 자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표16> 연세대학교의 2014학년도 특기자 전형 지원 자격

[특기자 전형 인문계열/자연계열]

■ 지원자격

1. 인문계열

가.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이수단위 및 등급 조건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한문 제외)와 국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58단위 이상인 자

2) 외국어 및 외국어에 관한 교과(한문 제외)와 국제 전문교과의 이수단위 합계가 30단위 이상이며, 상위등급 30단위의 이수단위 가중 평균등급이 2.0등급 이내인 자

나.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해외고 출신자로서 인문사회계열 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연구보고서, 대외수상 및 활동경력, 발표된 논문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자

2. 자연계열

가.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이수단위 및 등급 조건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의 이수단위의 합이 35단위 이상이며, 각 교과별 이수단위 가중 평균등급이 각각 3.0등급 이내인 자

2) 수학 관련 전문교과와 과학관련 전문교과의 이수단위의 합이 10단위 이상인 자

나. 고등학교 재학 중 국제올림피아드 참가자(참가자 선발을 위한 계절학교 수료자 포함), 국내 전국규모(사설기관, 지방행정자치단체 및 고교 주관 제외) 올림피아드 입상자

다.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해외고 출신자로서 과학인재로서의 성장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연구보고서, 대외수상 및 활동경력, 발표된 논문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어/수학/과학에 고교 3년 동안 35~58단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는 학교는 외고/과고 등 특목고밖에 없다. 또한, 고교 수준에서 올림피아드 수상실적이나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도 해당 과목에 특화된 수업을 하는 특목고에서나 가능하다. 해당 전공에 관련된 특기가 아닌 영어/수학과 같은 교과 학습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을 모든 전공에 특기자로 선발하는 경향은 주요 상위권 대학에 널리 퍼져 있다.

특기자 전형에서 일체의 외부 스펙 요구를 금지하고 해당 학과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표17> 중앙대학교의 2014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대학	모집단위	전공	소재지	수시모집(3,607명)											
				입학사정관(1,045명)						수시일반(1,774명)		특기자(788명)			
						기회균등형								예체능우수자	
				다빈치 형인재	학교생활 우수자	농어촌 학생	사회공헌 · 배려자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논술 우수자	수학능력 우수자	과학인재	글로벌 리더	실기형	특기형
인문	국어국문학과		서울	5	5	4	5	선발 (일부 모집 단위 제외)		18	5		6		
	영어영문학과		서울	7	5	9	5			20	6		36		
	유럽문화학부	독일/프랑스/러시아어문학	서울	10	10	6	5			28	10		5		
		독일어문학	서울										4		
		프랑스어문학	서울										4		
		러시아어문학	서울										4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중국어문학	서울	7	4	4	5			22	10		7		
		일본어문학	서울										5		
		중국어문학	서울										5		
	철학과		서울	5	4	2	3			13	10		3		
	역사학과		서울	7	4	3	3			15	5		4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서울	7	4	4	3			8	4		4		
	공공인재학부		서울	10	7					35	12		15		
	심리학과		서울	7	4	4	5			13	5		4		
	문헌정보학과		서울	3		2	2			18	10		4		
	사회복지학부		서울	6	5	5	12			20	12		5		
	신문방송학부		서울	8	5	6	5			18	5		9		1
	사회학과		서울	7	6	4	4			12	4		4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서울	3	5	3	3			32	10				
자연과학	물리학과		서울	4	5	3	2			16	9	6			
	화학과		서울	6	3	3	3			6	4	5	2		
	생명과학과		서울	6	4	5	5			10	6	8	2		
	수학과		서울	3	4	3	4			9	4	4			
	생명자원공학부		안성	3	20	3	4			100	31				
	식품공학부		안성	3	20	3	5			100	30				
	시스템생명공학과		안성	3	10					25	12	10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서울	5	5	6	4			39	20	15			
공과	건축학부	건축학(5년)	서울	5	4	3				10	9		2		
	건축학부	건축공학(4년)	서울	3	4	3				13	4	6			
	화학신소재공학부		서울	8	4	7	5			15	5	14	3		
	기계공학부		서울	10	8	6	7			47	15	21	3		
	전자전기공학부		서울	9	7	10	6			83	20	32	3		
	컴퓨터공학부		서울	7	5	5	5			30	7	15	3		
	융합공학부		서울	8	5					13	5	15	3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서울	6	10					34	10	10	5		
사범	교육학과		서울	10	5					8	7				
	유아교육과		서울	10	4		2			9	7				
	영어교육과		서울	6	5					10	5		2		
	체육교육과		서울	5											2
경영경제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서울							14	7		8		
	경영학부		서울	15	15	11	9			160	70		59		
	경제학부		서울	10	9	8	5			55	21		10		
	응용통계학과		서울		4	3				12	7				
	광고홍보학과		서울	6	4	4	3			15	8				
	국제물류학과		서울	5	4	6	3			20	8		7		
	지식경영학부		서울						165						
의과	의학부		서울	10						15		10			

<표18> 고려대학교 2014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대학	모집단위	전공분야	입학 정원	일반 전형[1]	학교장 추천 전형	특별전형			
						국제 인재	과학 인재	OKU 미래 인재	체육 특기자
경영	경영대학	경영학과	320	122	57	32		18	
문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54	20	9	5		2	
	철학과†	철학과†	40	15	7	4		2	
	한국사학과	한국사학과	24	9	4	2		1	
	사학과	사학과	43	16	8	4		2	
	심리학과†	심리학과†	52	20	9	5		2	
	사회학과†	사회학과†	74	28	13	8		3	
	한문학과†	한문학과†	24	9	4	2		1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	100	38	17	10		4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35	13	6	4		2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	38	14	7	4		2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51	19	9	5		2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	35	13	6	4		2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	41	16	7	4		2	
	서어서문학과	서어서문학과	46	17	8	5		2	
	언어학과	언어학과	28	11	5	3		1	
정경	정경대학[2]	정치외교학과†	79	30	14	35		20	
		경제학과†	117	44	21				
		통계학과†	70	27	12				
		행정학과†	79	30	14				
이과	수학과†	수학과†	45	17	8	3	8	2	
	물리학과†	물리학과†	45	17	8	3	8	1	
	화학과†	화학과†	45	17	8	3	8	1	
	지구환경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35	13	6	2	7	1	
공과	화공생명공학과	화공생명공학과	79	30	14	5	14	2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부	129	49	23	8	23	4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91	35	16	6	16	2	
	건축학과[3]	건축학과	40	15	7	2	7	1	
	기계공학부	기계공학부	133	50	23	8	24	4	
	산업경영공학부	산업경영공학부	52	20	9	3	8	1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자공학부	173	66	30	11	30	5	
의과	의과대학	의(예)학과	74	30	13	3	15	3	

(3) 대학들이 특기자 전형으로 규제를 피해갈 가능성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보면, 입학사정관제라는 명칭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학생부 전형에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기자 전형은 실기 위주 전형에 포함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학생부 전형에서는 일체의 외부 스펙 자료 제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특기자 전형에서는 외부 스펙 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새 대입제도를 시행하면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기자 전형 모집 비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수시에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일반 전형과 특기자 전형은 그 구분이 다소 모호하다. 실제로 일부 대학의 경우 특기자 전형이 입학사정관제로 이루어진다고 명시하기도 하며, 서울대의 경우 2012학년도까지 특기자 전형으로 부르던 수시 전형 명칭을 모집 요건을 그대로 둔 채 일반 전형으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서는 특기자 전형의 모집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입시를 운영할 우려가 있다. 특기자 전형에는 스펙 자료 금지 등의 제약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IV. 요약 및 우리의 주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특기자 특별전형은 많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기자 특별전형은 외국어/수학/과학 등 교과 관련 학업 우수자를 특기라는 이름으로 우대하고 있다. 현재 주요 대학들의 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다른 특기자 유형도 다양하지만 특별히 외국어/수학/과학 등 교과 우수자를 큰 비중으로 선발하고 있다. 교과 성적이라고 하여 특기가 되지 말란 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특기란 교과 외에 무언가 자신만의 특별한 재주나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한다. 교과 능력의 경우 내신이나 수능 등 기존의 대입 전형 요소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로의 변화 시점에서 학업 성적만이 아닌 창의성과 개성을 발굴하는 교육을 추구한다고 할 때, 현재의 특기자 전형은 그 방향성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

둘째, 특기자 특별전형은 전공 관련성과 상관없이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전공 특성에 따라 그 분야의 특기를 가진 학생을 발굴하기 보다는, 공인어학성적이나 올림피아드 등의 수상 실적 등 특정 요건을 가진 학생들이 거의 전 전공에 걸쳐 선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태는 해당 분야에 특기를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애초의 특기자 전형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대학들이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이와 같은 파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셋째, 특기자 특별전형은 학교 교육과정과 무관한 전형요소를 요구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기자 전형에서 요구하는 공인어학성적이나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 그리고 면접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수준의 구술 평가 등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으로는 도저히 대비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관련된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특기자 특별전형이 수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넷째, 특기자 특별전형은 외고/과고 등 특목고에 노골적으로 유리한 전형 방법을 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일반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수가 불가능하고 특목고에서나 실행 가능한 지원 자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특목고에서나 이수 가능한 단위의 외국어/수학/과학 이수단위를 요구하거나, 특목고처럼 특정 과목에 전문화된 수업을 할 때에만 가능한 수상실적이나 연구보고서 제출 등이 요구된다. 심지어 과학고나 영재고 졸업 대상자를 노골적으로 지원 자격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학교에 특기자 특별전형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점은,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특목고가 대학 입시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특목고 입시 등이 과열될 여지가 충분하다.

정부는 대입제도 개선안과 '15학년도 및 '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안에서 이에 대한 나름의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특기자 특별전형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모자란 형편이다. 원천적으로 특기자 전형에서 외부 스펙 자료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특기자 정원 축소나 면접에서의 교육과정 준수를 대학의 자율적 지양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지원 사업과의 연계 유도 방안도 현재로서는 그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17학년도 대입제도안 및 향후 정책을 세워나갈 때 특기자 특별전형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이 뒤따르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주장

1. 특기자 특별전형에서 외국어/수학/과학 등 교과 관련 학업 우수자를 선발하는 전형을 폐지하고, 교과외의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발굴하는 특기자 특별 전형으로 운영해야 한다.
2. 특기자 특별전형에서 전공과 상관없이 특정 자격이나 수상실적을 요구하는 지원 자격을 폐지하고, 해당 전공에 관련된 특기자 선발하는 애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3. 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하기 어렵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외부 스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교육과 무관한 개인의 특기를 발굴하는 전형으로 운영해야 한다.
4. 특기자 특별전형에서 특목고 등에 대해 편파적인 혜택을 주는 전형 요소를 금지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특목고 입학 등을 위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2 발제

특기자전형, 불공정 경쟁의 극치

이 범 (교육평론가)

특기자.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특정 영역에서 극히 우수한 성취를 거둔 사람. 달리 말하자면 영재. 어떤 교육컨설턴트는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를 먹여살릴 아이들'. 한 명의 천재가 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이론에 의하면, 이들은 '우리를 먹여살릴 아이들'이 맞겠지요. 당연히, 이들은 모종의 특별 취급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이들을 마음껏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기자전형이야말로 불공정 경쟁의 극치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특목고-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 사슬의 시작이며,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의 내용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규제해야 할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입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학생들의 부담감과 경쟁을 되도록 낮추는 것이고, 둘째는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기자전형은 현재 찾아볼 수 있는 대입전형들 가운데 가장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는 복마전이라 할 것입니다.

특기자전형은 학원을 필수적으로 다녀야만 합격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입 전형요소는 수능, 내신, 논술 등의 세 가지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사교육 필요도가 큰 것은 논술일 것입니다. 내신이나 수능은 그 문제유형과 대비법이 비교적 잘 알려져있고, 비록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이용하여 대비하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사교육 없이도 대비 가능합니다. 비교적 저렴한(혹은 무료인) 인터넷강의를 이용할 수도 있구요.
논술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입시험이 수능/논술로 이원화되어있는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입시험이 이원화된 나라는 선진국 중에는 일본(센터시험/본고사) 정

도밖에 없습니다. 수능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험인 반면, 논술은 30개 정도의 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3 교실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논술은 외면하고 수능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자연히 논술은 사교육 몫이 되어버리지요. 일부 고교에서 논술 대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논술의 사교육 필요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특기자전형에서 요구하는 전형요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특기자전형에서는 높은 점수의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이나 수학·과학 경시대회 입상실적 등이 요구됩니다. 공인외국어시험이나 경시대회 실적은 특기자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자격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강력한 전형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특기자전형에 지원 또는 합격하기 위한 전형요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단 공인외국어시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토플(TOEFL)을 기준으로 봅시다. 명문대의 경우 적어도 100점(IBT) 이상의 토플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정도 고득점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의 전문화된 영어 사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텝스(TEPS)는 그나마 '읽기'와 '듣기'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플보다는 사교육 필요도가 약간 낮고 실제로 가끔 독학을 통해 텝스 고득점을 올리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토플(TOEFL)에는 '읽기'와 '듣기'에 더하여 '쓰기'와 '말하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쓰기'와 '말하기'는 개별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즉 학생이 쓰거나 말한 문장 가운데 고칠 부분을 지적하고 더 나은 글/말을 위한 조언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현재 이러한 환경이 확보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결국 외국어 특기자전형 지원자의 대다수가 치르는 토플시험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거의 준비하기 불가능합니다.
수학·과학 경시대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수학·과학·정보 분야의 가장 공신력 있는 경시대회는 '올림피아드'로 통칭되는 경시대회입니다. 그런데 중등부 올림피아드에 입상하려면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해야 하고, 고등부 올림피아드에 입상하려면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움의 기회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공교육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과학고·경시대회 전문학원들에서만 접할 수 있습니다. 대치동의 과학고·경시대회 전문학원들에서는, 예를 들어 고등부 물리 올림피아드 준비를 위해 대학 2학년에서 배우는 내용까지 가르칩니다. 결국 장기간 계획적으로 학원을 이용한 학생들이 아니라면, 특기자전형에서 합격하기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교육과정을 공교육에서는 전혀 제공받거나 안내받을 수 없고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어떻게 용인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공교육에서 특기자전형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어떻게든 제공해 주거나(거점학교·온라인 교육프

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어느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특기자전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특기자전형은 소수만 선발해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왜 굳이 그걸 규제하려 드느냐고 묻고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특기자전형의 시작이라고 말할만한 것은 스포츠 분야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뛰어난 운동선수를 스카웃하는 방편으로 일종의 특례입학을 시켜왔던 것은 우리나라 유명 사립대들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연예인들이 연기나 대중음악과 관련이 없는 학과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나타났습니다. (연기 경력을 가진 아역 배우가 실기 시험을 거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던 일인데, 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연기·대중음악이 특기로 작용하는 것은 영어·수학·과학의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운동·연기·대중음악과 달리, 영어·수학·과학은 전통적인 핵심 대입과목입니다. 따라서 영어·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업체가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논리와 전략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①영어·수학·과학 중 학생 특성에 맞는 한 분야의 선행학습을 일찌감치 시작한다
②선행학습한 경력(또는 이를 통한 수상실적 등)을 활용하여 특목고(외고·과학고) 진학을 시도한다
③(특목고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상관없이) 고등학교에서 토플 또는 올림피아드를 통해 대학 특기자전형 진학을 노린다
④설령 원하는 대학에 특기자전형으로 진학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영어·수학·과학이 핵심 대입과목인만큼 이를 선행학습한 것이 여타 전형을 통한 대입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2009년에 있었던(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된) 특목고 선발제도 개혁을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은 일체의 선발고사와 스펙의 작용가능성을 봉쇄하고, 내신성적 및 자필서류와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반영하는 중학교 내신 과목을 대폭 제한한(외고·국제고는 영어로, 과학고는 수학·과학으로) 것이었습니다. 비교적 세부적인 관리도 잘 되어, 2000년대

이후 정부에서 시도한 선발제도 개혁 중에 사교육 절감에 가장 효과를 본 정책이었다고 평가할만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플이나 올림피아드 등을 겨냥한 사교육이 많이 감소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 ①~④의 전략 가운데 ②만 변화되었을 뿐, 가장 말단에서 강력한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는 ③,④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특기자전형에 도전하는 것은 일석이조입니다. 특기자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만한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 자체로서 좋은 것이고, 만일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준비과정에서 수행한 영어·수학·과학 선행학습이 여타 전형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기자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것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특기자전형을 방치하는 것은 대선공약 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펴낸 공약집에 보면, 대입 전형을 수능 위주, 논술 위주, 학생부 위주 등 세가지로 단순화시킨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후보 본인이 3차 TV토론 때에는 보다 강한 어조로 “학생들이 수능만으로, 논술만으로, 학생부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입학사정관전형과 특기자전형이 어떻게 될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의 경우 애초에 학생부 위주 전형과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의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교과와 비교과를 함께 본다는 점인데, 학생부에도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입학사정관전형에서는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게 되어있는 각종 교외 스펙(토플성적표, 경시대회 수상기록 등)을 별도의 첨부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선택지에는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교외 스펙(토플성적표, 경시대회 수상기록 등)의 제출을 규제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부분집합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특기자전형과 관련하여 정부가 가진 선택지는 특기자전형을 폐지하는 방안과, 입학사정관전형의 일부로 편입하는 방안이 예상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전형에 반영되는 ‘비교과활동’에 특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세가지 전형은 상당 부분 서로 겹치면서, 서로 넘나들 수 있는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부위주 전형 — 입학사정관 전형 — 특기자 전형

예를 들어 서울대의 경우 2012학년도까지 전체의 30% 가량을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다가, 2013학년도부터 특기자전형을 없애는 대신 수시 일반전형을 신설하고 여기에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였습니다.(그러면서 수시 일반전형의 정원을 전체의 무려 80%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입학사정관전형과 특기자전형의 범위와 기능이 상당히 중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예상되었던 두가지 방안(특기자전형을 폐지하는 방안, 입학사정관전형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모두 채택하지 않고, 특기자전형을 '실기위주 전형'의 부분집합으로 포함시켜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선공약 위반입니다. 물론 대선공약에 '실기위주 공약'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예체능 계열에서 실기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그머니 특기자전형을 포함시키고, 심지어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허용한다고 버젓이 발표하는 것은 이번 대선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던 국민들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오랜 기간 동안 선발제도의 변천을 봐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방향을 가진 제도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처럼 학벌주의가 강하고 사교육이 횡행하는 환경에서는 오도되고 악용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특기자전형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결코 사소한, 소수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초중등 교육의 분위기와 사교육 주류의 흐름을 일거에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영역입니다. 대선공약의 정신으로 돌아가, 특기자전형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입학사정관 전형의 부분집합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에 가기 위한 교육과정을 학원을 통해서만 밟을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비교육적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제 1 논찬

'꾼'보다는 '끼'를 키우는 전형으로

김덕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애당초 교육부가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을 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특기자전형이었다. 특기자와 실기전형은 함께 묶고, 외부 스펙을 인정한 사실은 대입간소화 안이 대학 중심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었다. 발제자들도 지적했지만 대입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각 대학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전형이 특기자(실기)전형이거나 수능중심의 전형이었다.

최근 들어 추진 방법 상의 혼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입간소화, 일반고 교육력 제고, 자유학기제 등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은 모두 '공교육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있다. 공교육 살리기란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발전을 기하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단순히 사교육과의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입간소화, 일반고 교육력 제고, 자유학기제 등의 대상은 다양한 꿈과 끼를 지닌 우리 아이들이고 그와 관련된 학부모와 교사들이다. 마치 전쟁을 치르듯 각종 신형 무기를 투입하고 '돌격 앞으로'를 외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의 이 논의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미래로 향해 가는 '길'을 닦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두 명심해야 한다.

특기자가 특혜가 되어서야

이미 앞에서 대입간소화의 밑바탕은 공교육 살리기이고, 이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있다고 했다. 학생부 중심 전형, 논술 중심 전형, 수능 중심 전형, 그리고 특기자(실기) 전형이든 모든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즉, '과정'을 평가하는 전형이 되어야지 결과를 반영하는 전형이라면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꿈"과 '끼'를 강조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꿈을 찾고, 끼를 발현하는 교육을 통해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꿈'이 성장동기라면 '끼'는 잠재력에 해당된다. 성장동기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잠재력이 탁월한 역량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특기'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특기자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따라서 특기자 전형도 교과 외의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반론을 펼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다만, 그렇다면 교과 영역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학생들은 특기자가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말할 수는 있다. 우리의 문제 인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게 된다.

현 정부가 말하는 '끼'는 학생들이 자신 속에 숨어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속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교육의 또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제로, 고교는 일반고 교육력 제고, 그리고 대입간소화라는 일련의 정책이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모든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에서 벗어나 배려와 협력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으며 중등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여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이는 '꿈"과 '끼'의 보편화 과정이다. 많은 학생들이 지닌 잠재력(또는 특기)를 찾아내 미래 역량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니 말이다. 그래서 교내활동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교내활동은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이 활동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된다. 학생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교육부도 익히 알고 있기에 학생부 중심 전형을 말하고 있다. 다만 '순진한' 교육부에 비해 '덜 순진한' 대학에서는 교과성적을 주요 변별 요소로 삼거나, 아니면 수능을 주요 변별 요소로 삼는 수능 중심 전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시 앞에서 언급한 학생들의 교내활동으로 되돌아가자. 특기의 발현은 교과 영역에서도 나올 수 있고 비교과 영역에서도 나올 수 있다. 아이들이 지닌 재능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현된다. 어떤 아이는 시각적인 영역에서, 또 어떤 아이는 청각적인 영역, 그 외에도 운동감각이, 어휘능력이, 논리적인 능력이, 사회성이, 사색적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과든 비교과든 아이들은 자신의 강점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점수로 나타난 성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규정했고, 하고 있다는 점이 오늘의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대학이 특기자 전형을

고집하는 의도 역시 '성적이 곧 실력'이라는 지긋지긋한 '한줄 세우기' 탓이다.

특기자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통합해야

특기자 전형을 실기 전형과 한데 묶은 까닭이 무엇인가. 아마도 간소화 추진위원들은 절묘한 신의 한 수라고 했겠지만 그 속내를 여지없이 보인 안에 불과하다. 행복교육은 '끼'의 보편화 과정이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는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한다. 이는 학생부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은 많은 학생들이 지닌 잠재력과 특기를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여 고등사고를 지닌 미래 인재로 키워야 마땅하다. 우리가 대입간소화를 통해 키우고자 하는 것은 '꿘'이 아니다.

오히려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포함하여 입학사정관들이 전형위원으로 참여하여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면 된다. 특기자 전형에 스펙을 넣자 빼자라는 논란 이전에 특기자 전형은 그 출발 의도를 보더라도 오히려 입학사정관 전형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맘 때면 고3 교실에는 많은 갈등이 있다.
도교육청에서 대입을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는다. 정규수업을 하지 않고 학원에 가서 실기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수능 전인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 수능이 끝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절묘하게(협박하거나 타협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결행하거나) 학교 수업을 팽개치고 자신의 입시를 준비하는 일을 감행한다. 그러니 이 때는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극심해 진다. 예체능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물론이지만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는 더 심하다.
대부분의 특기자 전형은 대학에서 제시하는 특기 기준과 서류 또는 면접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학교공부는 완전히 도외시한다. 발제자가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아도 학교 공부(내신)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눈치 챈 학부모는 재빨리 학생들을 특기자로 키워낸다. 즉, 만들어낸 특기자(강제 학습된 특기자)가 양산되는 것이다. 발제자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선행학습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의 특기자 전형이 20%를 웃도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아이를 위해 극성 특기자 엄마 안 될 학부모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중심 전형에 포함하고 이를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하여 교과적 영역과 비교과적 영역을 통해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게 하면 된다. 가장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큰 특기자 전형을 그대로 두거나 또는 외부 스펙을 허용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대입간소화 논란은 그저 말장난에 그칠 뿐이며 불과 몇 년 안에 우리는 심각한 교육파괴 현상에 직면할 것이다.

들째, 간소화라는 프레임에 갇혀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가능성을 그 프레임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권고, 지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재정지원이라는 칼로만 대학입시를 간소화할 수는 없다. 이는 너무나도 순진한 꿈에 불과하다. 다행스런 점은 지금 교육부는 전방위적으로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총체적으로 현장에 다가가고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만들어낸 특기자(강제 학습된 특기자)를 양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은 강제력으로 되지 않는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아울러 그 속에서 꿈과 끼를 찾은 아이들이 성장기록인 학생부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정량적 평가보다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평가 체제를 바꾸어 내는 일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선발하는 집단이 우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기생각 표현하기인 논술 전형은 필요

그동안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알려진 논술의 문제점은 이미 잘 드러나고 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과도적인 접근과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논술 전형은 학생들의 '자기생각 만들기와 표현하기'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렇다고 현행처럼 그냥 두어서도 곤란하다. 최저기준이 사라지고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모두들 사교육 기관으로 몰려갈 터이다. 아무리 학교에서 핵심성취기준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술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관성은 쉽게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돌리려는 노력이 학교에서 일어나야 한다.

우선 학교 평가를 바꾸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줄 쓰기도 버거워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제법 몇 줄 씩 자기 생각을 쓰기

시작한다. 핵심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수행평가도 토론과 탐구를 통해 아이들이 빈 줄에 자기 생각을 쓰기 시작했다. 학교 현장의 이런 노력과 어울려 대학에서도 논술은 고교 교육과정 내의 핵심성취기준을 질문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논술 100% 전형보다는 일정 비율 학생부가 반영이 되도록 필수 요소로 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논술은 공동출제를 하고 대학별로 채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공동출제를 하면 일제히 시험을 보아야 하기에 앞으로 수능제도와 함께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제 2 논찬

특기자 전형에 대한 논찬

전선기 (의정부 공고, 前 경기북 과학고 교사)

▌제 3 논찬

「특기자 특별전형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

최수일 (수학사교육포럼 대표)

저는 전공이 수학교육이고, 두 개의 과학고에서 9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오늘 발제문 중 수학 분야의 특기자 특별전형에 대해서만 논찬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학고 근무는 90년대 과학고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시기로, 과학고 입시가 자체 지필고사를 보던 방법과 지필고사를 가장한 구술면접고사로 전환한 시점까지 근무했던 한성과학고였고, 두 번째 과학고 근무는 구술면접고사와 올림피아드 입상자 특혜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에 최근 시행되고 있는 과학고 자기주도학습전형 첫 해에 입학사정관 일을 담당한 세종과학고였습니다.

먼저 김태훈, 안상진의 발제에서 지적한 연세대학교의 2014학년도 특기자 전형 자연계열 지원 자격에서 수학과 과학 관련 교과의 이수단위의 합이 35단위 이상인 것은 과학고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고등학교의 자연계열 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만 해도 35단위 이상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학 관련 전문교과와 과학 관련 전문교과의 이수단위의 합이 10단위 이상이라는 자격은 과학고 외에서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위 부분을 제외하고 두 가지 발제문에 대해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1. 올림피아드 시험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각 대학의 특기자 전형의 기준을 보면 올림피아드 주관 기관이 사설 단체인데 대학에서는

마치 공적인 기관의 평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출제 과정이나 채점 과정 등에 아무런 관여나 관리도 하고 있지 않는데 대학 입학요강은 사설 단체를 마치 공인된 기관처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아이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등의 공식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이 시험이 계속되고 이것을 대학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려면 보안 문제나 신뢰성 등을 검증할만한 대책을 세운 이후에 해야 할 것입니다.

2. 올림피아드 입상자가 우수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올림피아드 입상자가 우수하다는 주장이 타당한가의 문제입니다.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 올림피아드와 같은 어려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일 낼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역으로 올림피아드 입상자가 역량이 우수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자 중에는 과학고에서 수학 성적이 아주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이 올림피아드 유형의 시험 문제 풀이를 오랫동안 암기하는 수준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올림피아드 입상 실적의 향상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처음 참가한 1988년 이후 7년간 한 번도 10위권 이내에 들어온 적이 없는 우리나라는 1995년에 처음으로 7위를 하게 됩니다. 더욱이 최근 9년간은 한 번을 제외하고 5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수학올림피아드 위원회는 경시대회를 통해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합숙 훈련하는 것도 모자라 학기 중에는 온라인으로 지속적인 강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훈련으로 입상할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3. 경시대회는 초등학생에게 마라톤을 시키는 격입니다.

지금도 일부 영재고는 경시대회 성격의 문제를 푸는 시험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시대회를 통해서 과학고 입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시작 나이는 대략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에서 경시대회는 수학 밖에 없습니다. 과학 경시대회는 중학교 2학년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초등 3학년 때부터 경시대회 공부를 하다가 4-5년 후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 경시대회(KMO, 한국수학올림피아드)에서 좋은 상을 타지 못하면 영재학교 입학이 어려우니 물리나 화학 등 과학 경시대회로 주종목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 경시대회는 1-2년이면 좋은 상을 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올림피아드 세계의 아이들 성장기입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은 초등 시절엔 남학생과 똑같이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 시작하는 영재교육원에 가면 남녀가 거의 동수입니다. 그런데 6학년쯤부터 여학생들은 줄어들기 시작하여 중학교 영재교육원 수학반을 보면 4 : 1 정도로 남학생이 많습니다. 이유는 여학생들이 초등 6학년 때쯤 외국어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중에 가던가 아니면 외고로 진학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여 중3까지 이어지는 마라톤 같은 경주에서 남학생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6-7년 동안 밤을 세워가며 경시대회 문제를 푸는 훈련을 견뎌내는 여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출전자는 거의 남학생들로 채워집니다.

4. 심층면접 또는 구술면접은 정상적인 출제가 어렵습니다.

심층 면접 또는 구술 면접은 그 구조 자체가 대학에서 출제하고 관리하는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상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제자인 대학 교수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쉽다고 생각하고 확대 해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출제자인 교수는 대학교 과정의 수학 내용을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출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출제를 하는 시기가 대학의 학기와 맞물려 있어서 대학 재학생의 휴강 등의 문제가 있어서 대학에서는 수능처럼 긴 출제 기간을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출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날마다 가르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대학 과정에서의 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2-3학년 수준의 수학 내용을 이용한 출제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키라고 하며 예산 연계 운운하는 교육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제대로 출제할 능력이 없는 대학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제 4 논찬

특기자 전형에 대한 논찬

구본억 (교육부 대입제도과 사무관)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 및 수능 개편안 4차 토론회

일시	토론회 명	발제자 및 논찬자(발제자■)
제1토론회 (9월 10일, 화)	수능 개편의 최우선 과제는 '수학의 수능 범위 축소'에 있습니다.	■**최수일**(수학사교육포럼 대표) □**박제남**(인하대 수학교육학과 교수) □**박성은**(고양외고 수석교사) □**신동희**(고3 학부모)
제2토론회 (9월 23일,월)	대학별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고교 논술 평가를 대입에 반영하십시오.	■**윤지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병오**(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박재원**(행복한 공부 연구소장) □**김성천**(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
제3토론회 (9월 30일,월)	특기자 전형에서 일체의 스펙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이 범**(교육평론가) □**김덕년**(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전선기**(의정부 공고, 前 경기북 과학고 교사) □**최수일**(수학사교육포럼 대표) □**구본억**(교육부 대입제도과 사무관)
제4토론회 (10월 2일,수)	창의, 융복합적 인재 양성의 길을 묻다.	■**박도순**(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이찬승**(교육을바꾸는 사람들 대표) □**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무성**(한국교총 대변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공식카페:** www.noworry.kr **전화 :** 02-797-4044~6 **팩스 :** 02-797-4484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197번지 유진빌딩 4층 **메일**: noworry@noworry.kr